



아이언 메이든 'S', 분명 오차가 아니다. 트리뷰트 밴드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밴드. 2005년 발매된 첫 번째 앨범이 열 나라 일본에서 뒤늦게 정식 라이선스로 발매되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아이언 메이든스를 소개한다. 글 송영화 수석기자 / 사진제공 DRZ 레코드

THE IRON MAIDENS

▶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의 내한공연이라던가 아마 트리뷰트 밴드의 DVD 발매 등으로, '트리뷰트 밴드'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않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봐 왔던 트리뷰트 밴드들과 조금은 그 성격이 다른 밴드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모두 여성들로만 구성된 밴드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키스 트리뷰트 밴드인 키섹시(Ginexy), AC/DC 트리뷰트 밴드 에이 씨디쉬(AC/DShe), 칩 트릭 트리뷰트 밴드 칩 칩(Chisp Chick) 등 그 이름에서부터 재치를 느낄 수 있는 많은 밴드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나티내고 있는 그룹이 바로 오늘 소개할 아이언 메이든스다.

에자 킴(Aja Bruce Lee Chickinacn' Kim), 기타에 사라 마시(Sara 'Mini Murray' Marsh)와 히더 베이커(Heather 'Adrienne' Baker), 베이스에 완다 오리츠(Wanda 'Stoph Harris' Ortiz) 그리고 드럼에 린다 맥도널드(Linda Nikki

McBURRain' McDonald). 구성원들의 예명들도 무척이나 재미있다. 예전, 힙합 보드러너 레이블을 달고 양질의 메탈 음반들이 양산될 무렵 밴드 블루(Phantom Blue)라는 여성 5인조 그룹의 이름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드림을 담은 린다 맥도널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메탈 밴드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밴드 블루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아이언 메이든스는 바로 밴드 블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린다 맥도널드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사라 마시 역시도 현재 밴드 블루의 기타리스트. 또 이들 두 명의 뮤지션은 오지 오스본 트리뷰트 밴드인 리틀 돌즈(Little Dolls)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말 그대로 1인 3역의 주인공들이다.

아이언 메이든스가 결성된 것은 2001년이다. 본격적인 남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인지도를 서서히 높여나갔고, 한정된 지역의 클럽 공연에만 머물렀던 여파 트리뷰트

밴드들과 달리 이 전역을 도는 무어를 감행했음은 물론, 캐나다, 괌, 일본과 대한민국의 미군부대에서도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아이언 메이든의 곡들로만 채워진 한 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아이언 메이든의 마스크 에디를 따라붙이고, 피 흘리는 손톱을 치켜든 또 하나의 괴물이 등장하는 자켓을 담당인 인물은 바로 에디를 탄생시켰던 장본인 데릭 리그스(Derek Riggs). 음반은 브루스 디킨슨이 자신의 솔로음반을 제작했던 실버 클라우드(Silver Cloud)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고, 아이언 메이든의 사운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베이스 소리를 위해 직접 스티브 해리스의 엠프와 캐비닛을 빌려서 녹음할 정도로 새로운 아이언 메이든 만들기엔 심혈을 기울인 음반이다.

수목자들은 아이언 메이든의 팬들이라면, 아니 메탈 메니아라면 그저 눈을 감고 있어서 줄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아이언 메이든의 대표곡들, 'The Number Of The Beast', 'Aces High', 'Hallowed Be Thy Name'과 같이 브루스 디킨슨 시절의 곡은 물론 'Phantom Of The Opera'나 'Killers'와 같은 폴 디아노가 보컬을 담당하던 시절의 곡들도 담겨있다. '트리뷰트'라는 밴드의 성격상 별다른 편곡이나 재해석이 아닌 원곡에 충실한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고 있지만, 여성으로만 구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괴워'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덜리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섬세한 부분들과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음원을 만들어 내는 여파 트리뷰트 밴드들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선한 느낌은 받을 수 있다.

에초에 트리뷰트 밴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언 메이든스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꼭 같다'라든지 '그림자하다'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룹들의 출연은 그저 다른 아들의 움직임에 발 맞춰 한 두 곡만을 준비해 트리뷰트 음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참가하여 자신의 이름만을 음반에 새겨 넣는 많은 밴드들의 활동과는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일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순간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연과 아이언 메이든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 한편, 조만간 모라헤드의 필 캠벨(Phil Campbell)이 참여한 두 번째 트리뷰트 앨범 [Route 66]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니 유사한 여파 밴드들 사이에서 단연 이경외적인 존재로 각인될 만 하지 않을까. 음악 감상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밴드다. (S)



WORLD'S ONLY FEMALE TRIBUTE TO IRON MAIDEN (2005)
제작/발매 DRZ 레코드
